"여러분들의 모든 영 적, 물질적인 필요에 성 호세마리아에게 간 청하시라고 권고 합니 다"

지난 6월 26일, 로마 교구 성호세마리아 본당에서 오푸스데이 단장 하비에르 에체바리아 주교님의 강론.

사랑하는 형제, 자매 여러분 1. 성 암 브로시오께서 "성인들의 탄생은 보편 적인 기쁨을 가져옵니다. 그들이 우 리 모두에게 속하기 때문입니다"라고 말씀하십니다 (성 암브로시오, 루가 복음의 해설 II, 30). 오늘 6월 26일, 성 호세마리아의 축일도 전 교회에게 기쁨의 날이고, 세계의 큰 도시들의 대성당들과 작은 마을들의 작은 성당 들에, "항상 성인들을 통하여 찬미 받 으실" (시편 67/68, 6 참조) 하느님께 이 친구와 보호자를 주심에 감사하려 모일 수백만 명의 신자들에는 환희의 날입니다. 이 성인 사제에 대한 애착 은 세계에 퍼져 있지만, 오푸스데이 의 창설자께서 당신의 영혼을 하느님 께 바치신 이곳 로마에서의 이 축일 은 더욱 특별한 힘을 얻는다 할 수 있 겠습니다. 평화의 성모 마리아 자치 단 성당에 그분의 유물이 모셔져 있 습니다.

지난 10월 6일, 교황 요한 바오로 2 세께서 시성 하셔서, 올해 처음으로 호세마리아 에스크리바님의 축일을 성인으로서 거행하게 되었습니다. 그 래서 오늘은, 그분의 영혼과 모범으 로 보여주신 가르침을 신앙생활에 가 득히 물어 놓으려고 하고, 당신의 전 구를 통해 많은 은혜와 은총을 받아 신세를 진 우리에게 특별한 축일이라 는 색조를 가집니다.

성 호세마리아께서 우리에게 가까운 인물이었고 항상 그렇게 될 것입니 다. 역사적 중요한 그분의 인격뿐만 이 아니라, 매일 평상 생활에서 작고 큰 필요에 그분의 도움을 청하기 때 문입니다. 저희는 그분의 부성, 아버 지임 을 보고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. 지금도 저희의 목소리를 들으시고, 같이 하시고, 뒷받침 해주시기 때문 입니다. 하늘에 가신 지가 아직 많이 지나지 않았으니 진정 가정적인 인물 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. 우리들 중 에 몇몇은 개인적으로 그분과 같이 생활 할 수 있었습니다. 하지만 우리 모두가 친밀한 마음으로 그분을 부를 수 있는 것이, 거룩함을 찾음과 사도 적 작업의 의무의 길에서 우리를 도 와주시기 위해 주님께서 그분을 우리 의 마음의 깊은 곳에 놓아 주셨기 때 문입니다.

Gratias tibi, Deus, gratias tibi: 당신 께 감사드립니다, 하느님, 감사드립니 다. 우리들의 감사함은 오늘 특별한 강도를 가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. 먼 저 이세상과 성 교회에게 이 성스럽 고, 기쁨을, 또 깊은 사도적 열성을 가지신 봉사자를 보내주신 삼위일체 이신 천주께 감사해야 하겠습니다. 또 모든 은총이 모성적인 중재로 오 기 때문에 성모님께도 감사해야 하겠 습니다. 마지막으로, 주님께 성실하시 고 하느님께서 영원에서부터 맡겨주 신 사명에 몸과 마음을 바치신 성 호 세마리아 에게도 감사드려야 하겠습 니다. 세계에서 수많은 이들이 전구 기도를 드릴 때 빌 듯이, 그 사명이란 각자 자신들이 직업 안에서, 일상적 인 의무들을 지킴에서, 즉 이 세상에

서 거룩함을 찾는 길을 여는 것이었습니다. 그 길은 사회 모든 신분의 남자와 여자가 걸을 수 있는 길이고, 실제로 많은 이들이 걷고 있는 길입니다. 당신께 감사드립니다, 하느님, 감사드립니다.

2. 오늘 미사의 복음 말씀은 예수님 께서 첫 제자들을 부르심을 한번 더 묵상할 기회입니다. 주님께서는 베드 로와 안드레아를 각자 직업 안에서 찾으러 가셨습니다. 배를 빌려서 땅 에서 조금 떼어놓게 하신 다음 군중 들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. 말씀이 끝나시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쳐 고기를 잡아라고 하십니다. 시몬 베 드로는, 처음 가졌던 저항을 예수님 의 말씀에 믿음으로 이기고, 극히 이 례적인 고기잡이 기적에 참여하게 됩 니다. 그리고 나서 "너는 이제 사람들 을 낚을 것이다" (루가 5,10) 라고 하 시는 주님의 초대를 받아 영원히 예 수님을 따를 결정을 다른 열한명의 제자들과 함께 하게 됩니다: "그들은

배를 끌어다 호숫가에 대어 놓은 다음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따라갔다" (루가 5.11).

성 호세마리아는 이 복음 말씀을 자 주 묵상하셨습니다. 그곳에서 하느님 께서 맏겨주신 사명, 즉 모든 이들 에 게 직업이, 세상의 일들이 그리스도 와 만나는 기회가 될 수 있으며, 모든 이들이 거룩함과 사도작업에 부르심 을 받았다는 것을 알려야 함에 대한 확인을 찾으셨습니다. 그분이 쓰신 "길" 에 한 항목에 "당신이 그렇게 놀 라워하시는 것이 제게는 당연한 것 같습니다. 주님께서 당신의 직업 안 에서 당신을 찾으려 가셨다고요? 마 찬가지로 첫 제자들을 찾으셨습니다: 베드로를, 안드레아를, 요한 과 야고 보를 그물 근처에서, 마테오를 수금 원의 자리에서, 그리고 (놀래십시오!) 바오로를 그리스도인들의 씨를 말리 려고 하는 일에서 찾으셨습니다" (성 호세마리아, 길, 799).

1928년부터, 오푸스데이의 창설자께 서는 이 메시지를 쉬지 않고 설교하 셨고, 전도하시고, 자신부터 실천하시 려 노력하셨습니다. 이것이 그분의 삶의 목적이 되었고 모든 힘과 하느 님께서 주신 인간적인, 또 초자연적 인 재능을 헌납하셨습니다. 지금은 천국에서, 많은 남녀들이 모든 자력 을 다해 예수님을 가까이 따를 수 있 도록, 또 바로 성성(聖性)이라 할 수 있는 그리스도와의 동일함을 상소한 일들에서 찾을 수 있도록, 하느님의 왕위 앞에 전구 하면서 이 사명을 계 속해서 달성하고 계십니다.

오푸스데이의 창설자께서 천국에 가 진지가 28년이 되었습니다. 그 동안 자치단의 심의회에 십이 만이 넘는 성 호세마리아의 전구를 통한 은혜를 알리는 편지를 세계 모든 곳에서 받 을 수 있었습니다. 아마존의 삼림 지 에서부터 남극근처의 눈이 가득한 마 을에서 부터까지에서 오는 소식이었 습니다. 이 산더미 같이 쌓인 증언들 을 살펴보면, 그분에게 부탁되는 은 혜가 부여되었을 뿐만이 아니라, 먼저 각 신자에게 영적 적인 은총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. 그분께서 이 세상에서 사실 때, 특별히 돌아가시기 다수년전에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. 하느님과 만날때가 되어 가는 것을 생각하실 때 "하늘에 있으면 더욱 여러분들을 잘 도와줄 수 있습니다" 라고 말씀하시곤하셨습니다.

이 말을 들으시는 여러분께 저는 물적 적이거나 영적 적이거나, 중요한 것이거나 필요하실 때 성 호세마리아를 부르시라고 권고 드리고 싶습니다. 빠드레께서 여러분들을 다정하게, 세심하게 지키시고 계십니다. 그리고 여러분들이 바라시는 것보다 훨씬더 조흔 것들을 하느님께 서부터 얻어 내 드릴 것입니다. 믿음과 인내를 갖고 청하십시오, 하느님의 뜻을 따르고, 여러분의 뜻처

럼 이루어지게 원하면서 말입니다. 그리고 성 호세마리아의 전구를 통해 서 은총의 채널인, 성사를 더 가까이 하십시오.

3. 1928년 10월 2일, 하느님께서 성 호세마리아에게 그 거대한 사업을 보 여주셨을 때부터 그분은 그 사명이 한 곳이나 시간에 묶이지 않고 보편 적이고 영구적인 것이라는 것을 깨달 으셨습니다. 매일 평상의 삶, 가족, 직 업, 사회생활들이 영구적인 일들이기 때문입니다. 시성식 날에 성 호세마 리아의 메시지를 요약해서 교황 님께 서 말씀하셨듯이 "직업과 어떤 다른 일들도, 은총의 도움을 가지면 거룩 함으로 가는 평상적인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". (요한 바오로 2세, 호세마 리아 에스크리바 시성식 미사 강론. 2002/10/6).

성 호세마리아의 인물과 가르침의 보 편적임은 명백하게 존경받는 장소가 다양함에서 볼 수 있습니다. 오늘이 나 멀지 않은 날에 다섯 대륙에 수백 도시와 마을에서, 대부분이 각 교구 의 주교 님이 집전하시는, 성 호세마 리아를 기념하는 미사가 행해질 것입 니다.

"깊은 곳으로 가 그물을 쳐 고기를 잡 아라"고 하신 예수님의 명령을 복음 말씀에서 들을 수 있습니다. 교황 님 께서 그리스도교 적인 발자국을 새로 시작된 이 세기에 새기라고 하신 초 대가 한번더 귀에 들리는 것 같습니 다. 2001년에 이렇게 쓰셨습니다 "소 망을 가지고 나아 갑시다. 제이천년 대가 교회 앞에 그리스도의 도움을 가지고 모험을 할 거대한 바다처럼 열립니다. 이천년전에 인간을 사랑하 셔서 사람이 되신 성자께서 오늘도 그분의 일을 하시고 계십니다. 예리 한 눈빛을 가지면 볼 수 있습니다. 그 리하여 저희가 그리스도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큰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 다." (요한 바오로 2세, "새천년기"

Novo millennio ineunte, 2001/1/6, 58).

시성식 미사 강론때 요한 바오로 2세 께서 성 호세마리아께서 "예수님께서 베드로 사도께 하셨던 초대를 의심 없이 받아드리셨다" 하시고, "깊은 곳으로 가십시오 (Duc in altum) 라고그의 영적 가족이 성 교회에게 일치와 사도직 봉사로서 기허할수 있도록전했습니다. 이 초대는 오늘 우리에게도 전해지는 것입니다. 깊은 곳으로 가 그물을 쳐 고기를 잡으십시오 (루가 5,4)." (요한 바오로 2세, 호세마리아 에스크리바 시성식 미사 강론, 2002/10/6).

우리 모두가 그리스도를 가까이 따르 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. 대부분이 가족, 직업, 사회 안에서의 신분을 벗 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부르심을 받았 습니다. 어떤 사회 활동이든지 그 작 업 안의 깊은 곳으로가 무서움 없이 그물을 쳐야 하겠습니다.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진실된 사도가 되어 예수 님께서 우리의 배, 즉 우리의 삶에 올 라오시어 다스리시게 해야 하겠습니 다.

성 호세마리아의 전구를 통하여, 우리의 어머니이신 성모님께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심어주신 요구를 들어 주시라 빕니다. **아멘.**

2003년 6월 26일

pdf | document generated automatically from https://opusdei.org/ko-kr/article/yeoreobundeulyi-modeun-yeongjeog-muljiljeogin-pilyoe-seong-hosemariaegeganceonghasirago-gweongo-habnida/(2025-11-20)